

독서의 계절이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분다. 이 가을, 신선한 바람과 함께 독서삼매경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의 추천 책 중 하나를 골라 가을 독서를 시작해보자.

▲읽을만한 신간 어디있나?

올해 출간된 신간 가운데 좋은 책을 읽고 싶다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도서를 참고하자. 위원회는 최근 2~3개월 이내 출간된 책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추천 도서 10종을 매달 발표하고 있다.

10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는 완도출신 소설가 임철우의 초라한 산골역을 중심으로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다뤄주고 있는 '이별하는 골짜기'를 비롯해 젊은 인문학자 오세정의 발칙한 고전 읽기 '고전, 대중문화를 엮는다', 실크로드 3대 간선의 하사인 '조원 실크로드'를 문명사적 시각에서 본 '조원 실크로드를 가다', 피아니스트 김소희가 들려주는 특별한 클래식 이야기 '에클레식스를 좋아하세요?' 등이 추천됐다.

또한, 일상으로 접하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이력환의 사이언스 토크토크', 세계 금융사 전반을 되돌아본 '금융의 지배-세계금융사 이야기 준다', '올레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의 올레길 폴스토리 '꼬다꼬다 걸어가 이 길저 길'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 SERI CEO 추천도서 목록을 눈여겨 보라.

▲많은 이들이 인정한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를 원한다면, 인터넷서점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해보자.

인기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등은 많은 사람이 인정한 책으로 이젠 고전이 됐다.

특목 뛰는 발랄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작가 오쿠타 히데오의 '공중그네'와 지금의 무라카미 하루키를 있게 한 소설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 분다번의 '시크릿',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전 10권),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등도 이곳저곳에서 추천되는 책이다.

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권비영의 '덕혜옹주-조선의 마지막 황녀', 공지영의 '도가니',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강아지 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를 담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꾸라', 고경호의 '4개의 통장-평범한 사람이 목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시스템', TV 다큐멘터리로 먼저 소개된 '아이의 사생활' 등도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들이다.

올해 연말이면 절판될 법정스님의 저작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소유욕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무소유'를 비롯해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 '일기일화', '인연 이야기' '출로 사는 즐거움', '물소리 바람소리', '오두막 편지' 등은 맑고 향기로운 삶의 향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책들이다.

▲왜 그리 인기지?

베스트셀러를 읽는 것이 독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기를 끄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세상 흐름을 이해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주간 베스트셀러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번 주(9월 넷째 주

가을이예요 책한권 어때요

'이별하는 골짜기' '1Q84'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정의란 무엇인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26일 광주 총장서문을 찾은 시민과 학생들이 진열대 앞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집계)에도 1위에 올라 올해 들어 9주 동안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24일 출간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현재까지 40만 부 이상 출고됐다.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원작 소설 정은결의 '성균관 유생들의 나라' 1권은 지난주 3위에서 이번 주 2위로 올라섰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원작 에세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14위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재진입했고 법정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는 20위로 순위에 새로 들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1~3권, 더글러스 케네디의 '빅 픽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의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박완서의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신경숙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황석영의 '감남동'도 눈에 띈다. /김태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적 연극연출가 스즈키 타다시 내달 광주 방문

특별한 만남 다양한 이야기

광주국제공연제 참석

일본 출신 세계적인 연극 연출가 스즈키 타다시(Suzuki Tadashi·71)씨가 광주를 방문한다. 스즈키씨는 오는 10월1일~17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0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스즈키씨는 행사 기간인 8일 오

후 4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앞 비닐 하우스 극장에서 지역 연극인, 시민들과 특별한 만남을 갖고 연극적 요소와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1966년 극단 와세다 소극장을 설립해 다양한 실험극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특히 세익스피어극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스즈키씨는 행사 기간인 8일 오



스즈키씨는 또 일본인이 갖는 문화와 독특한 신체적 움직임을 결합시킨 '스즈키 배우 훈련법'을 창안, 작품활동에 접목시키키는 등 세계 실험극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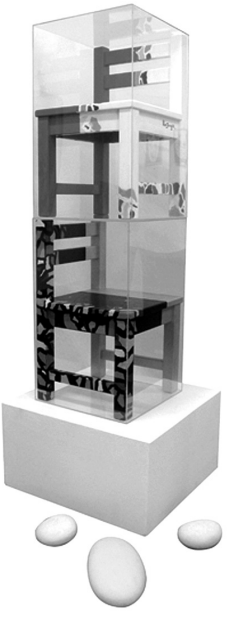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본다

28일부터 '한·일·싱 현대미술-NOW AND NEXT'전

최근 대단장 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이 재개관을 기념해 오는 28일~11월12일 동아시아 현대 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한·일·싱 현대미술-NOW AND NEXT'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추상미술 그룹인 사단법인 현대미술 에프프의 김종일 화백을 비롯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작가 52명이 참여해 화려한 현대 미술의 진수를 선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일씨는 검정색 모노톤으로 꾸민 의자를 소재로 공간이 갖는 조화와 변주를 추구한 작품을 선보이고, 우재길씨는 이미지를 면과 곡선으로 표현한 빛 연작을 전시한다. 이 밖에 고려도자살과 조선도자살, 신안해저유물살, 고분살 등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장에서 각각 불교미술, 도자기, 유교문화, 아시아 미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6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일 작 '박물관전'

무등도서관, 전국 우수도서관 선정

광주시립도서관(관장 정반표)인 무등도서관이 전국 650개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광주시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무등도서관이 높은 평점을 받아 오는 29일 제 47회 전국도서관대회에 개최되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에서 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14일부터 2개월에 걸쳐 전국 6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서면평가로 1차 평가

를 실시하고, 여기서 통과한 50개 예비 우수도서관에 대해 현장실사와 무작위로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등 2차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무등·사직·산수도서관 등 시립도서관은 올해 초부터 서예교실과 한국 화교실, 자녀영어 독서지도반, '클릭 클릭 어린이 영어교실' 등 20여 개 독서문화 강좌를 상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오는 10월 6일 무등도서관 잔디밭과 우산근린공원 일대에서 '빛고을 어린이 백일장 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오는 11월 25~28일 광주영상문화재단 G시네마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며 10월 중순부터 11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모집분야는 홍보팀, 기술팀, 기록팀, 현장진행팀 등이다.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ngwonfilm@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http://www.gjhrff.com. 문의 062-529-7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합, 교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1관 슈퍼배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최고급관	1관 그랑프리(12세)
2관 그랑프리(12세)	2관 해결사(15세)	2관 무적자(15세)	2관 해결사(15세)
3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3관 무적자(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1세	3관 퀴즈왕(15세)
4관 퀴즈왕(15세)	4관 캣츠엔독스2(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4관 해결사(15세)	4관 슈퍼배드(전제)
5관 캣츠엔독스2(전제)/무적자(15세)	5관 그랑프리(12세)	5관 레지던트이블4(18세)	5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
6관 슈퍼배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6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아저씨(18세)	6관 퀴즈왕15	6관 레지던트이블4(18세)
7관 해결사(15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7관 마루밀아리에티(전제)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슈퍼배드(전제)/레지던트이블4(18세)	8관 슈퍼배드(전제)/해결사(15세)	8관 그랑프리(12세)	8관 무적자(15세)
9관 무적자(15세)	9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무적자(15세)	9관 무적자(15세)	
10관 해결사(15세)	10관 퀴즈왕(15세)		

상당원전 열 방배-(1번 or 2번)-0번
☎ 1588-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자장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련연약국사거리
☎ 1544-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이음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색깔있는 영화상영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